

2019년 10월 17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이익 개선 불구, 경기 우려 속 하락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따른 무역협상 불확실성 부각도 부담

미 증시 변화 요인: 무역분쟁, 경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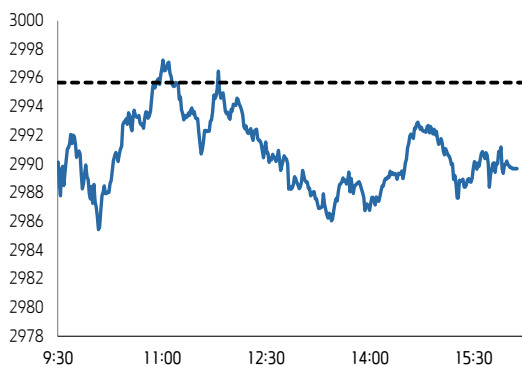
미 증시는 소매판매 부진과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이 부각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이미 시작했다” 라고 언급한 이후 보험까지 낙폭을 축소. 전반적으로 시장은 부진한 지표와 무역분쟁, 양호한 실적 등이 혼재되며 약 보험권을 등락을 보임(다우 -0.08%, 나스닥 -0.30%, S&P500 -0.20%, 러셀 2000 +0.12%)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83%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 발표가 이어짐. 이로 인해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오늘도 BOA,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 다만, 전일과 다른 점은 전일에는 관련 업종으로 확산되었다면 오늘은 해당 종목만 강세를 보임. 이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미국 경기 위축 우려 등이 부각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트럼프가 장중 “1 단계 합의에 대한 문서화가 진행중이다”, “중국이 농산물을 이미 수입하기 시작했다” 라며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음. 그러나 “서명은 APEC 회의 이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불안을 야기.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 시켰고, 상원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라며 강하게 반발. 시장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향후 무역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9 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도 0.1% 감소하는 등 소비 둔화에 따른 미 경기 위축 우려를 높임. 연준 또한 베이지북을 통해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며 경제 성장은 확장이 지속되겠지만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지난 발표에 비해 후퇴. 특히 서부와 남부보다 중서부, 팜벨트 지역의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언급. 이런 가운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비둘기 성향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를 약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82.83	+0.71	홍콩항셍	26,664.28	+0.61			
KOSDAQ	651.96	+0.80	영국	7,167.95	-0.61			
DOW	27,001.98	-0.08	독일	12,670.11	+0.32			
NASDAQ	8,124.18	-0.30	프랑스	5,696.90	-0.09			
S&P 500	2,989.69	-0.20	스페인	9,386.70	+0.33			
상하이종합	2,978.71	-0.41	그리스	858.37	+0.02			
일본	22,472.92	+1.20	이탈리아	22,428.09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넷플릭스 시간 외로 9% 급등

BOA(+1.48%)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한편,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0.23%), 웰스파고(-1.04%), 골드만 삭스(+0.46%) 등 여타 금융주는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유나이티드 항공(+2.07%)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4분기 실적 가이드스 또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나 아메리카항공(-0.78%), 델타항공(-0.88%) 등 관련 업종은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 했다.

어도비시스템즈(-2.39%)는 씨티그룹이 성장 기대치가 너무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며 투자의견(Buy→Neutral)과 목표주가(322달러→313달러)를 하향 조정하자 약세를 보였다. 세일즈포스(-3.78%)도 동반 하락했다. 램리서치(-3.01%)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하락 했다. AMAT(-2.55%)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0.71%)는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시간 외로 9% 상승 중이다. IBM(-0.62%)은 매출 부진으로 시간외 3% 하락 중이다. 페이스북(+0.35%), 알파벳(+0.06%), 아마존(+0.57%) 등 대형 기술주는 트럼프가 유럽의 디지털세금 반대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1%	대형 가치주 ETF(IVE)	-0.14%
에너지섹터 ETF(OIH)	-1.22%	중형 가치주 ETF(IWS)	-0.08%
소매업체 ETF(XRT)	+0.59%	소형 가치주 ETF(IWN)	+0.26%
금융섹터 ETF(XLF)	-0.25%	대형 성장주 ETF(VUG)	-0.30%
기술섹터 ETF(XLK)	-0.69%	중형 성장주 ETF(IWP)	-0.5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5%	소형 성장주 ETF(IWO)	-0.14%
인터넷업체 ETF(FDN)	-0.69%	배당주 ETF(DVY)	-0.07%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0%
주택건설업체 ETF(XHB)	+0.8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8%
바이오섹터 ETF(IBB)	-0.11%	미국 국채 ETF(IEF)	+0.20%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25%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1.46%	Long/short ETF(BTAL)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2.81	-1.49%	+1.45%	-6.80%
소재	360.28	+0.30%	+3.15%	-1.61%
산업재	651.04	-0.04%	+3.37%	-1.95%
경기소비재	958.85	+0.41%	+3.02%	-0.28%
필수소비재	619.84	+0.09%	-0.64%	-0.07%
헬스케어	1,057.20	-0.12%	+2.95%	+0.22%
금융	464.84	-0.24%	+3.55%	-1.49%
IT	1,436.23	-0.71%	+2.43%	+0.91%
커뮤니케이션	170.89	+0.15%	+3.28%	-0.27%
유틸리티	322.03	+0.24%	-1.19%	+0.10%
부동산	242.99	-0.12%	+0.03%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지속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보합을 기록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100 계약 순매수 한 데 힘입어 0.55pt 상승한 277.5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약보합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 기술주는 상승한 점이다. 장 중 하락하던 대형 기술주는 트럼프가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유럽이 부과한 디지털 세금에 대해 반대한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증시의 안정이 기대된다. 실적 바닥론이 부각되고 있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한편, 미국 소비 둔화는 향후 한국 수출 부진 우려를 높일 수 있으나,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대차대조표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오늘부터 연준은 7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며 이를 시작했다. 더불어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로 9% 넘게 급등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도 시간 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매판매 둔화

9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해 전월(mom +0.6%)은 물론 예상(mom +0.3%)를 하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mom +0.2%)을 하회한 전월 대비 0.1% 감소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이 전월(mom +1.9%) 발표를 크게 하회한 전월 대비 0.9% 감소 했으나, 식품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지난달 발표치(mom +0.1%)을 상회했다. 가솔린도 0.7% 감소해 지난달(mom -1.3%)에 이어 연속 둔화되었다.

10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68) 보다 개선된 71 로 발표되었다. 단독 주택(75→78)도 개선되는 등 연속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강세 지속

국제유가는 미국 소비가 둔화되는 등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전일 OPEC 사무총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오늘 반영이 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연준이 대차대조표 확대를 시작했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따른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EU 투스크 의장이 “브렉시트 관련 합의의 주요 토대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언론이 오늘은 협상 타결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소매판매 부진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홍콩 인권 법안 통과에 따른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발표에 비해 경기 전망을 후퇴 시킨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비둘기 성향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EU 투스크 의장이 “브렉시트 관련 합의의 주요 토대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된 점도 하락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소매판매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78%, 철근도 0.8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36	+1.04	+1.46	Dollar Index	98.013	-0.28	-1.11
브렌트유	59.42	+1.16	+1.89	EUR/USD	1.1075	+0.38	+0.95
금	1,494.00	+0.71	-1.24	USD/JPY	108.76	-0.09	+1.19
은	17.427	+0.25	-2.15	GBP/USD	1.2827	+0.31	+5.09
알루미늄	1,728.00	0.00	-0.92	USD/CHF	0.9948	-0.40	-0.11
전기동	5,730.00	-0.74	+0.81	AUD/USD	0.6761	+0.12	+0.54
아연	2,434.00	-0.16	+6.24	USD/CAD	1.3203	+0.03	-0.98
옥수수	391.75	-0.38	-0.63	USD/BRL	4.1518	-0.67	+1.03
밀	513.25	+1.23	+2.60	USD/CNH	7.1006	+0.23	-0.52
대두	928.00	-0.64	+0.46	USD/KRW	1187.80	+0.22	-0.44
커피	93.55	-0.95	-1.99	USD/KRW NDF1M	1185.45	+0.12	-1.0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45	-2.62	+16.12	스페인	0.250	+2.60	+10.20
한국	1.528	+1.80	+10.60	포르투갈	0.199	+2.20	+6.80
일본	-0.161	+0.80	+3.90	그리스	1.381	-1.40	-2.80
독일	-0.387	+3.00	+16.10	이탈리아	0.923	-1.20	+5.60